

김희수 진도군수 '지역발전행정대상' 수상

서울평화문화대상 영예... "실천하는 군수 성과 인정"



김희수 진도군수가 2023 서울평화문화대상 '지역발전행정대상' 을 수상했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공적을 남긴 분야별 선도자들에게 그 성과를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시대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탁월한 역량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역발전행정대상' 을 수상했다.

진도군은 민선 8기가 출범하며

‘군민이 주인, 살기 좋은 진도!’를 목표로 ▲다 함께 잘사는 산업 ▲모두가 행복한 복지 ▲인재를 키우는 교육 ▲찾아서 머무는 관광 ▲군민을 섬기는 행정의 5대 혁신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제창할 수 있는 새로운 진도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행동하고 실천하는 군수가 되기 위해 노력한 성과가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주인인 살기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땅끝해남소식’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 전국 최고 소식지로 우뚝



해남군 구석구석에 풍부한 군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땅끝해남소식’이 제 33회 2023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공공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 국내외 정부기관 및 단체들이 후원하여 매년 국가기관, 자치단체, 기업 등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우수한 제작물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사보 관련 시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에서 발행하는 ‘땅끝해남소식’은 2015년 특별상을 시작으로 2020년 최우수출판물 부문 최우수

상, 2021년도 인쇄사외보 부문 대상에 이어 올해는 인쇄사보-공공부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매월 2만 5,000부를 발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군민들의 사랑받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한 땅끝해남소식은 해마다 가독성을 높이고 읽을거리를 다변화하면서 매년 구독자가 급증하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해남군 60% 이상의 세대에서 구독하고 있을 만큼 군정과 군민들을 잇는 중요한 소통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해남만의 특성을 잘 살린 정보를 알리고 공유하는데 탁월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옛 성화대, 문화콘텐츠 허브로 거듭난다

글로벌대학 선정 순천대 “폐교 대학에 공동연구센터 구축”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등 동반 성장 앞장

최근 정부의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돼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는 순천대가 폐교 대학인 강진의 옛 성화대학 부지에 공동연구센터를 만들어 평생교육과 재직자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통해 문을 닫은 성화대학이 있는 강진의 교육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최근 무안에 있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글로벌대학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알렸다.

특히, 순천대는 폐교된 성화대학을 공동연구센터로 삼아 애니메이션 문화콘텐츠 인재 육성 등 글로벌대학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화대학은 지난 1997년 개교 당

시 320명으로 출발했다. 2007년 1,236명까지 증원되다가 2012년 폐교돼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화대가 있는 성전면 인구는 개교 당시 약 4,500명이었지만 현재는 2784명으로 40%가량 줄어들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같은 순천대

의 운영 방향에 “과거에는 교육부가 재정 지원 사업을 할 때 선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글로벌대학 선정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시자 역시 “전남도는 순천대에 직접 사업 1,349억 원, 연계 사업 36개에 4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거듭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9월 순천대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순천대 글로벌30 선정 및 성공적인 운영,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영암군미래교육재단, 민·관·학 협력 모델로 출범

교육정책 컨트롤타워·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지역인재 양성 박차

영암군은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이 27일 영암군실내체육관에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마을교육공동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양성이 목표인 영암군미래교육재단은 (재)영암군민장학회를 계승·발전시킨 민·관·학 협력 모델의 독립법인이다.

미래교육재단은 지역 교육기관을 연결해 영암군 교육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등으로 학생의 성장을 도울 예정이다.

재단은 지난 9월 영암교육지원청 인가와 법인 등기를 마쳤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율형 미래교육 선도지구 성과 나눔’을 주제로 영암교육 한마당도 열려 출범하는 교육재단 앞길을 뜻깊게 했다.

우승희 (재)영암군미래교육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분야의 창의적인 인재를 찾고, 이들이 지역 사회 안팎에

서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재단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재단 전신인 (재)영암군민장학회는 2008년에 설립된 이후 영암군 학생 9000여 명에게 80억 4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신안, 생태계 기초생산량 증진... 백합 100만미 방류

갯벌 습지보호지역·세계자연유산 보호 관리 목적 추진



신안군은 신안 갯벌의 기초생산량 증진을 위해 조개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백합을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백합 방류 사업은 지역민들의 소득 증진과 갯벌생태계의 기초생산량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신안 갯벌을 국

내 최대의 습지보호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의 보호 관리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합과 같은 이매패류는 바닷물의 탄산칼슘을 흡수하고, 껍질을 키워나가는 성장을 하며 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백합 방류는 이동성이 적은 종패를 방류함으로써 장기간 성장에 따른 갯벌생태계 회복이 기대된다.

신안군은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입자면, 자은면, 중도면, 비금면 등 과거 백합의 자생지였던 모래갯벌을 중심으로 방류를 추진했다. 총 100만 마리, 4톤에 달하는 종패를 방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신안 갯벌은 전 세계의 모든 형태의 갯벌이 관찰되는 지역이다.”라며 “생태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생명력을 가진 백합처럼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가진 신안 갯벌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강종복 기자

목포,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물 배부 등 활동 펼쳐

목포시가 사기전화(보이스포싱)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 원도실에서 열린 ‘산타빌리지 행사’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사기전화 예방 홍보에 적극 나섰다.

최근 기관사칭, 대면편취, 대출사기 등 사기 전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이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시가 특단의 홍보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시는 이날 사기 전화 예방 5계명 및 유형별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고전화는 범죄신고(112), 금융감독원(1332), 민원상담(182)로 신고할 것을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사기 전화(보이스포싱) 예방홍보를 위해 금융기관, 경로당 등 다중집합장소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대면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버스터미널, 병원, 은행, 영화관 등 다중시설 20개소와 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시스템 218개소에 예방홍보 동영상 송출하는 등 사기 전화 예방 홍보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김재욱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해수·해조류·머드 등
16개 치유 테라피실 갖춘 해양치유센터**



팔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023. 11. 24.(금)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